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②
(修習止觀坐禪法要)

止 수행처가 바로 觀 수행처 즉지즉관의 오묘한 법

대체로 모든 중생들은 무사이래로 최초일념이 무명불각(無明不覺)으로 일어나 그 무명번뇌가 다시 청정한 마음을 가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초 일념무명이 중생들을 끝없는 생사의 세계로 유전시키는 원인인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의 본래 밝았던 마음이 번뇌의 어두움으로 전환되고, 본래 고요했던 심성이 시끄러운 생사요동으로 뒤바뀌었다. 중생의 자체 마음은 근원적으로 영명하고 그 지혜는 법계의 이치를 철저히 관조했지만, 무명망상 때문에 지금까지 애매모호한 어둠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본래 불생불멸했던 마음이 끊임없이 생멸을 반복하는 망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생들은 본래 청정한 마음을 등진 채 매일같이 오욕육진의 대상세계를 추구하면서 시끄럽게 요동하는 망상을 본래 마음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를 두고 마치 도적을 자기 자식으로 착각하는 경우와 같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명번뇌로 껴잡힐 때가 바로 그 근본은 원래 지혜광명이며, 생멸로 시끄럽게 요동할 때가 본래적으로 청정한 이치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근본마음자리는 본래 망상으로 요동하는 모습이 아니며, 지혜광명과 번뇌의 어두움이 상대적인 파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파도와 물이 그 자체의 모습에선 파도의 차별상이 아닌 것과도 같다.

가령 중생이 지관법문을 실천하고 수행한다면 어두운 모습으로 생멸 요동하는 마음을 전환하여 지혜광명으로 본래 고요한 불생불멸의 마음을 환하게 드러낼 수 있다. 즉 '지' 수행을 통해서 생사를 정지하여 열반을 이룰 수 있고 '관' 수행을 의지해서 생사의 모습인 번뇌를 타파하여 무상정등각을 성취할 수 있다.

'지관'은 약과 같고 갖가지 탐진치 등의 번뇌와 끝없이 유전하는 생사는 모두가 병이다. 그렇다면 '지'라는 약으로 생사의 병을 치료하고 '관'이라는 약으로 번뇌의 병을 다스려

아만 한다. 따라서 '지관'이라는 약은 복용할수록 그 효과는 극대화된다. 그러므로 지관수행을 부지런히 행하면 생사번뇌의 모든 병을 거른히 치료할 수 있다.

우리의 자성엔 번뇌가 본래 없고 괴로움의 원인인 번뇌가 없으므로 역시 생사라고 결과도 없다. 그 자리는 미혹과 깨달음이라는 차별상이 본래 공적하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수행점차의 모양도 허깨비처럼 실제하지 않는다. 마치 마니보배에 모든 색깔이 비추기는 하나 그 자체엔 그들 색깔 모두가 본래 없는 것과도 같다. 단지 중생들은 광경이래로 진흙탕 속에 오염되고 육진경계에 집착하여 본래 있던 청정한 광명이 실제론 가리움 없이 가리움이 있게 되었다.

삼중차별을 이야기했지만 중도지관일 뿐 좌선법요통해 삼중지관으로 방편 삼아야

그러므로 지금 마니보배의 광명을 환하게 드러나게 하려면 문지르고 세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진흙 속에 가려진 마니광명의 본래 모습이 스스로 나타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기는 하나 마니의 청정한 광명은 본래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세탁을 통해서 없던 것을 새삼 얻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위적인 세척을 의지해서 제 모습이 드러날 뿐이다. 이것이 지관수행을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본성과 수행의 상호관계인데, 수행이라고는 하나 그것은 본성을 떠난 파도의 수행이 아니고 전체의 본성에서 일으키는 수행이며, 본성이라고 하나 그 본성은 수행을 떠난 파도의 본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수행을 의지해서 본래 있던 성품이 드러나므로 전체의 성품에서 수행을 일으키는 전성기수(全性起修), 전체의 수행에서 본성이 나타나는 전수현성(全修顯性)이어서

序說 2 중생의 심성은 본래 그 자체가 청정하고 스스로가 지혜광명이다. <승엄경>에서는 이를 두고 '중생의 근본마음 자리는 상주불변한 진실한 마음이고, 본성이 청정한 지혜광명 그 자체이다(상주심성정명체 常住真心性淨明體)'라고 말하고 있다.

중생의 마음을 두고 이미 진실한 마음이라고 했다면 그 마음의 자성은 청정하고 그 자성은 지혜광명일 뿐이므로 현재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청정한 법계이며 커다란 광명을 간직한 상태이다.

이처럼 중생의 근본마음은 본래 청정한 천진본인데 무엇 때문에 인위적인 지관수행을 해야만 하는가.

본성과 수행이 둘이 아닌 성수불이(性修不二)를 두고 지관을 치우침 없이 원만하게 수행하는 원수지관(圓修止觀)이라고 한다.

'지관'의 이치는 범부와 성인 모두에게 하나로 통하고 그 의미는 대소승을 함께 아우른다. 가령 '모든 악한 일을 하지 말라(諸惡莫作)' 하는 것은 '지' 수행에 해당하고 '뜻 선업을 적극 실천하라(衆善奉行)' 함은 바로 '관' 수행에 포함된다. 또 십악업(十惡業)을 행하지 않는 것은 '지'며, 동시에 십선업(十善業)을 일으키는 것은 '관'이다. 이처럼 '지관'은 인천지관(人天止觀)이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승지관(小乘止觀)도 있지만 지관의 이치를 원만하게 밝힌다면 대승 삼지삼관(三止三觀)을 말할 수 있다.

는 식이변분별지(息二邊分別止)와 공과 가가 원만한 중도라고 관찰하는 중도제일의제관(中道第一義諦觀)이다. 이 지관이 지관수행에서 그 극치를 이룬다.

중도지관은 진속이제가 하나의 이치로 응통하고 주관 객관이 두 모습이 아니다. 집착 없는 가운데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고 공과 유가 둘이 아니며, 고요와 관조가 하나의 자체이고 세간과 출세간이 일심의 이치일 뿐이다.

비록 중일 중생을 제도한다 해도 제도할 만 한 실제 중생이 없고 중일 설법한다 해도 끝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으며, '지' 수행처가 바로 '관' 수행처서 지에 상극한 관이 관에 상극한 즉지즉관(即止即觀)의 오묘한 지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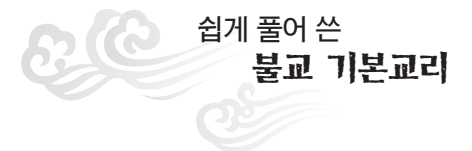
그러므로 삼중지관을 이처럼 차례로 말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게 하려한 때문이지 실제로 일즉삼(一即三), 삼즉일(三即一)이어서 비일비삼(非一非三)이며 삼이일(三而一)인 원융한 중도지관일 뿐이므로 실제론 삼중차별이 없게 된다.

그러나 지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초보 지관이므로 반드시 좌선법요(坐禪法要)의 차례를 삼중지관의 방편으로 밝혀야만 한다. 따라서 본서는 열 종류의 의미로써 지관수행의 절차를 밝히고 있다.

제1 구연(具緣)에서는 지관수행을 하려면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고, 제2 가유(加欲)에서는 오욕(五欲)에 대한 집착을 꾸짖었고, 제3 기개(棄捨)에선 오계(五蓋) 번뇌를 물리치라 하였으며, 제4 조화(調和)에선 몸과 마음을 조화하라 하였고, 제5 방편(方便)에선 방편보조수행을 닦으라 했고, 제6 정수지관(正修止觀)에선 지관을 올바르게 수행하라 하였는데 이처럼 방편과 근본수행이 완성되면 삼지삼관을 원융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지관법문은 최초 발심한 자가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법문이다. 때문에 제목을 '修習止觀坐禪法要'라고 하였다.

■ 중승승가대 교수



업론(業論)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업(業)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보(業報), 자업자득(自業自得), 인과응보(因果應報) 또는 전생과 관련지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업 사상은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친숙한 단어이며 우리의 의식 속에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업이라고 할까요. 업이란 한마디로 하는 일, 행위를 뜻합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작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모든 행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몸과 말과 뜻의 세 가지로 활동을 하는데 이 행위를 신구의 삼업(身口意 三業)이라고 합니다. 첫째 육체로 짓는 행위(身業), 둘째 언어로 짓는 행위(口業), 셋째 마음으로 짓는 행위(意業)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행위는 서로가 따로의 개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다시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상호 동시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의식에서 의지적인 사려가 발동하면 그 뒤

육체·언어·마음으로 짓는 三業은 따로의 개체아닌 상호 동시적 관계

에 그 사려에 걸 맞는 언어와 행동이 일어나 그 의지적인 사려를 현실로 실현함으로써 이 세 가지 행위가 공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사업을 성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 가지 업을 일으키는 본체는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의지적인 행위는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법을 수반하게 됩니다.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따르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세 가지 행위는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순간순간 창조해 나가기도 하지만 다시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지배하기도 합니다.

모든 세간의 괴로움에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이 같은 세 가지 행위를 그 유형 성질에 따라서 상호관계성과 그 성질과 인과성과 시간성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표 참조)

업의 분류

- (1) 상호관계성으로서의 업
 - 불공업(不共業)/공업(共業)
 - (2) 성질적인 업
 - 선성업(善性業)/악성업(惡性業)/무기업(無記業)
 - (3) 인과관계로서의 업
 - 복업(福業)/비복업(非福業)/부동업(不動業)
 - (4)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업
 - 현수업(現受業)/생수업(生受業)/후수업(後受業)
- 정리=張如舟

주말마다 가까이서 부처님 만나는기쁨!

현직 불교대학 교수들이 부처님 탄생에서부터 현대불교의 세계적 흐름까지 불교 전체에 대한 안목을 키워드립니다. 수행자 스님들의 수행법과 살아있는 생활법문이 여러분의 삶을 즐겁고 향기롭게 합니다.

정각원 토요일법회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9월 15일부터)
- 장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당
- 대상 : 일반인 및 동국가족
- ※ 개원법회 : 2007. 9. 15(토) 09:30 ~ 초빙법사 - 월은 큰스님(동국대 역경원장)

■ 법회 및 강연 일정

월	일	주 제	강·법사	비 고
9	15(토)	개원법회	월은 큰스님	동국대 역경원장
	22(토)	부처님의 이해 I - 불교와 인도	법산 스님	불교대학원 원장
	29(토)	부처님의 이해 II - 탄생과 의미	장병조	문리대학 교수
10	6(토)	기도·생활법회	해거 스님	공감선법장
	13(토)	부처님의 이해 III - 출가와 수행	해주 스님	불교대학 교수
	20(토)	부처님의 이해 IV - 깨달음과 내공	정승석	불교대학 부학장
	27(토)	부처님의 이해 V - 교화와 열반	계환 스님	불교대학 교수
11	3(토)	성지 순례 - 불교 문화유적 답사	김정균	예술대학 교수
	10(토)	불교의 수행 I - 간경과 독송	김용성	불교대학 교수
	17(토)	불교의 수행 II - 불교와 수행	성민 스님	불교문화대학 교수
	24(토)	불교의 수행 III - 수행의 구조	해환 스님	불교대학 교수
	1(토)	기도·생활법회	인옥 스님	서각사 주지
12	8(토)	불교의 수행 IV - 연불수행	보경 스님	불교대학원 원장
	15(토)	불교의 수행 V - 선 수행	법산 스님	불교대학원 원장
	22(토)	불교문화 - 불교와 한국 전통문화	김상현	불교대학 교수
	29(토)	세계 속의 불교 - 현대 세계불교	김용표	불교대학 교수
	5(토)	기도·생활법회	정학 스님	전 조계종 포교원장
2008. 1	12(토)	초기불교의 이해 I - 초기불교와 교단	안영규	불교문화대학 교수
	19(토)	초기불교의 이해 II - 경전 성립과 계율	신성현	불교대학 교수
	26(토)	초기불교의 이해 III - 주요 교설 1	김중옥	불교대학 교수
	2(토)	초기불교의 이해 IV - 주요 교설 2	황승일	불교대학 교수
2	16(토)	부파불교의 이해 I - 부파불교 교단	고영성	불교대학 교수
	23(토)	부파불교의 이해 II - 부파불교 특징	유재선	불교대학 교수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T.0212260-3016,3017 F.0212260-3744 홈페이지 http://jeonggak.dongguk.edu 동국대학교 정각원

공 고

재단법인 한국불교 총화종 유지재단 법인 설립

한국불교 총화종의 유지발전을 도모하고 중지종풍을 함양하여 불교 중흥과 불교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로 부터 2007년 8월 27일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음을 공고합니다.

- 목적사업 -

- ◎ 불교문화 홍보, 포교 교육사업
- ◎ 종단재산 보호관리 및 중보 출판물 간행사업
- ◎ 강원설립 및 교육(승가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연구사업)
-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재) 한국불교총화종유지재단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342-1
☎ 031-592-8891